

# GIST,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개최

- 설립 30주년 맞아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GIST 2053' 비전 선포
- 제1기 입학 동문 축하, 개원 초 부임 교수 회고사로 설립 30주년 의미 더해



▲ 임기철 총장이 16일(목) 오룡관에서 개최된 GIST 설립 3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1월 16일(목) 오후 2시 GIST 오룡관 2층 다산홀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거,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내외 귀빈과 GIST 학생·교직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뮤지컬배우 최정원 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임기철 총장의 기념사, 외빈 축하, 비전 선포식, 30주년 홍보영상 시청, 학생 댄스 동아리('막무가내')의 축하공연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총장 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GIST 제1기 입학생 오석중 동문**(지구·환경공학부 졸업, (주)에코월드팜 회장)이 축사를, **개원 초기(1994년) 부임하여 정년퇴직(2016년)한 이용탁 명예교수**(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가 **회고사**를 하여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했다.

**임기철**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GIST가 설립 30년 만에 세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한 것은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보답의 뜻을 전하고, ‘**30년 저력을 30년 미래로**’라는 결의를 다지며 **지역과 함께 혁신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GIST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GIST는 비전선포식에서 지난 30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30년 후인 2053년에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세계대학평가 50위권 진입을 위해 교육·연구·성과확산 부문에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임기철 총장이 16일(목) 오룡관에서 개최된 GIST 설립 30주년 비전선포식에서 ‘GIST 비전 2053’ 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주기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드맵 구축)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3만 명 양성** ▲(임무중심형 R&D 수행 및 연구 질 제고) **인류 난제 해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석학 30명 배출** ▲(고부가가치형 성과확산 및 가치창출) **유니콘급 기업 30개 배출**을 ‘GIST 비전 2053’의 구체적인 목표로 정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민과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1993년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내린 후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해 온 GIST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 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편 **지역혁신의 중심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1997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15명(박사 1,838명, 석사 4,910명, 학사 1,167명)의 이공계 우수 인재를 배출\*한 GIST는 美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와 인공지능(AI) 분야 공동연구 수행 등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갖추고 활발한 국제 연구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누적 기술이전 계약액 616억 원을 기록하고 한국창업보육협회가 평가한 '창업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성과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 2023년 하반기(8월) 학위수여자 기준, 박사학위 수여자 1인당 SCI급 학술지에 평균 약 5편의 논문 게재. 박사 졸업생 중 10% 국내·외 우수대학 교수 임용.